

세계 경제 동향

○ 국제유가, 미·이란 협상 신중론에 상승 | '26-4-17 연합뉴스

- '26년 4월 셋째주 국제유가는 미·이란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신중론이 확산되며 지난 4월 13일 하락 이후 16일 다시 상승함. 16일 기준 ICE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 대비 4.7% 상승한 배럴당 99.39달러, 뉴욕상품거래소의 5월 인도분 WTI는 3.7% 상승한 배럴당 94.69달러에 마감함.
-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란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해상봉쇄 지속과 전투작전 재개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며, 현재까지 미군의 경고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서 13척의 선박이 회항한 것으로 확인됨.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2차 협상이 주말에 열릴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시장에서는 경제 제재 내성이 강한 이란의 태도 변화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부상함.
- ❖ 미·이란 협상의 실질적 진전이 지연되며 국제유가 변동성이 재확대되고 있어, 비료·사료 원료 등 에너지 연계 농업 투입재 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IMF, '26년 세계경제 성장률 3.1%로 하향 전망 | '26-4-14 IMF; 기획재정부

- '26년 4월 14일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2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1%로 지난 1월 전망 대비 0.2%p 하향 조정함. 중동전쟁의 충격이 에너지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 금융시장 위험회피 심리 확산 등의 경로로 파급되고 있다고 진단함. 세계 물가상승률 전망도 4.4%로 1월 대비 0.6%p 상향됨.
- 한국 성장률은 1.9%로 1월 전망 수준을 유지하여 선진국 평균(1.8%)을 상회하였으며, 수출 호조와 추경 효과가 중동전쟁 영향을 보완한 것으로 평가됨. 한국 물가상승률은 2.5%로 전망됨.
- ❖ 에너지·식품 가격 상승이 세계 물가 전망의 주요 상향 요인으로 지목된 만큼, 사료·비료 등 수입 원자재 가격이 국내 농가 경영비와 식품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제적 점검이 필요함.

국내 경제 동향

○ 원/달러 환율, 미·이란 종전협상 변동성에 1,480원대 등락 | '26-4-17 SBS Biz

- '26년 4월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8.9원 오른 1,483.5원에 마감함. 미·이란 2차 종전협상 임박 소식에 이틀간 하락하였던 환율이 협상 결과 불확실성으로 상승 전환하여 이틀 연속 상승함.
- ❖ 종전협상 진행 경과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환율 상승이 농자재 수입단가와 사료·비료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농가 경영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함.

○ 3월 수입물가 전월 대비 16.1% 상승 | '26-4-15 한국은행

- '26년 3월 수입물가지수(원화기준)는 국제유가 및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광산품·석탄및석유제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16.1% 상승(전년 동월 대비 18.4% 상승)하였음.
- 용도별로는 원재료가 원유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40.2% 급등하였으며, 중간재는 석탄및석유제품(+37.4%), 화학제품(+10.7%)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8.8% 상승함. 특히 부타디엔(+70.6%), 나프타(+46.1%) 등 석유화학 중간재의 상승폭이 두드러짐.
- ❖ 에너지 원재료와 석유화학 중간재 가격 급등이 시차를 두고 국내 농자재 수입단가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추경 연계 지원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중간재 가격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함.

세계 농업·농정 동향

○ 일본 농림수산성, 연료유 공급 안정화 ■ '26-4-10 일본 내각관방

- 농림수산성은 '중동 사태 대응 식량 안정 공급·확보팀'을 설치하고, 경제산업성과 협력하여 연료유 공급 안정화 및 품목별 공급 분석 역량을 강화함.
- 농림수산성은 공급 상담 창구를 통해 접수된 241건의 현안을 품목별 공급망 분석, 중앙-지방 정보 수집,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대응
- 낙농·유제품 및 탈지분유 등 식품 제조업에서 연료 수급 차질이 발생했으나, 정유사 공급 조절을 통해 전년 수준 연료를 확보하여 생산 차질을 방지하고 있음.
-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급망의 병목, 현안, 개선사항 파악을 위한 '농식품 분야 공급망 관련 상담·소통방'을 개설

○ 세계은행, 3월 국제 비료 가격지수 전월 대비 26.2% 급등 ■ '26-4-2 세계은행

- 세계은행이 4월 2일 발표한 월간 상품가격 데이터에 따르면, 3월 국제 비료 가격지수는 183으로 전월(145) 대비 26% 급등함(전년 동월 대비 +43%). 국제 비료 원자재 가격도 일제히 상승함.
- (요소) 2월 472달러/톤 → 3월 725달러/톤 54% 급등 (전년 동월 대비 +84%)
- (인산이암모늄, DAP) 2월 627달러/톤 → 3월 658달러/톤 5% 상승 (전년 동월 대비 +7%)
- (염화칼륨) 2월 373달러/톤 → 3월 381달러/톤 2% 상승 (전년 동월 대비 +13%)
-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7월까지 안정적인 국내 비료 공급이 가능하나, 전쟁 장기화 시 하반기 비료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음.

국내 농업·농정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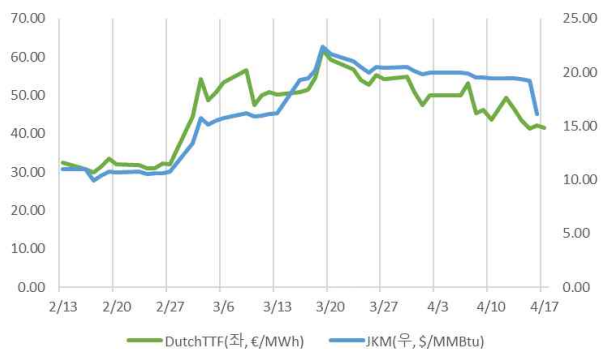
○ 농식품부, 추경 예산 3,775억원 확정·신속 집행 추진 ■ '26-4-10; '26-4-13; '26-4-15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중동 사태 대응 추경 예산을 3월 31일 2,658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1,118억 원을 증액함. 4월 10일 본회의 의결로 추경 예산은 3,775억 원 규모로 확정됨.
- (면세유) 시설원예농가 난방유 유가연동보조금 추가 증액(16억 원), 트랙터·콤바인·경운기 농기계용 경유로 지원 대상 확대(529억 원 증액)
- (무기질비료) 무기질비료 지원단가 최대 10만→16만 원, 지원 물량 14만→24만 톤으로 확대 (73억 원 증액)
- (사료산업) 사료제조업체 원료구매자금 용자 추가 지원 (500억 원 증액)
- 확정 예산(억 원): 면세유(623), 무기질비료(115), 농업자금이차보전(22), 농가사료(650), 사료산업(500), 농축산물 할인지원(500), 농식품 수출바우처(72), 농지조사(588), 농어촌 기본소득(706)
- 농식품부는 4월 13일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추경 예산 즉시 집행을 위한 준비 현황을 점검함.
-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은 농협의 면세유관리시스템 정비 완료 후 5월 중순부터 농가에 지급할 계획임.
- 농협경제지주는 3월 9일~4월 30일 구입분에 대해 등유 450원/ℓ, 경유 180원/ℓ, 휘발유 60원/ℓ 단가로 구입액 일부를 농업인에게 환급할 예정임.
- ❖ 중동 사태 대응 추경 예산이 확정·집행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수입선 다변화·비축 확대 등 공급망 안정화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26년 2월~4월 국제 유가 추이』



『'26년 2월~4월 국제 천연가스 가격 추이』



『'26년 2월~4월 원/달러 환율 추이』

